

# 빛 바랜 야스민·박정아 46점 합작...시페퍼스 연승 '불발'



### 듀스 끝 4세트 내주며 도로공사에 1-3 패 19일 안방서 기업은행과 대결...반전 기대

AI페퍼스의 창단 이후 첫 연승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1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진정' 김천실내체육관 코트에 섰다. 지난달 19일 페퍼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박정아는 19점을 올리며 페퍼스의 3-2 승리에 기여한 바 있다. 1세트에서는 박정아가 연속 2점을 내며 문을 열었다. 10점대까지 우위를 점하던 페퍼스는 중반부터 도로공사 문정원의 연이은 속공과 페퍼스가 놓친 '최대어' 김세빈의 블로킹으로 기세가 흔들렸

다. 2점차 간극을 박정아가 매우며 18-18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점진 끝에 부키리치와 타나차의 활약으로 도로공사가 25점으로 먼저 도달했다. 1세트에서는 도로공사와 페퍼스의 공격 성공률이 40.54%로 같았지만 2세트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세트와 동물이었던 도로공사에 비해, 페퍼스는 35.13%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7번의 범실을 내며 22-25로 2세트를 마쳤다. 1·2세트를 내주며 0-2로 밀리던 페퍼스가 3세트에서는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야스민의 과감한 공격이 부키리치를 맞고 떨어지며 기세를 이어 나간 페퍼스는 12-5까지 점수를 벌리기도 했다. 세트포인트에서 필립스가 공격이 통하면서 25-18로 3세트를 이긴 페퍼스는 역전 희망 속에 4세트를 이어갔다. 긴 랠리 끝에 박정아가 공격에 성공하며 4세트를 열었고, 중반부터 두 팀은 1점차로 팽팽한 승부를 끌고 나갔다. 17-18로 뒤진 상황에서 수비를 하던 이현비와 오지영이 서로 부딪히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페퍼스가 1점 차로 세트포인트에 먼저 이르렀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바로 추격하며 듀스를 만들었다. 이어 필립스가 도로공사 타나차의 공격을 막는데 실패하면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에 승리를 내줬다. 경기 MVP로 선정된 도로공사 부키리치는 29점을 쏟아내며 팀 득점(71)의 40%를 책임졌다. 페퍼스에서는 야스민이 득점 29를 올리며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팀내 블로킹 8개 중 3개도 야스민의 것이었다. 박정아는 17점을 올렸다. 야스민과 박정아가 46점을 만들어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이고은은 이날 경기에서 역대통산 디그 성공 2000개를 돌파한 41번째 선수가 됐다. 이날 16개의 디그를 성공하며 현재 디그 성공 2012개를 달고 있다. 페퍼스의 공격 성공률과 효율은 각각 38.85%와 27.39%로 도로공사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역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경기 패배로 페퍼스는 승점 5점(2승 6패)을 기록하며 그대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홈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경기를 펼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가 지난 1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의 경기에서 공을 넘기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변성환 감독 "골대 불운 속상...16강 기회 아직 남아 있어"

### U-17 월드컵 프랑스에 0-1 패 부르키나파소전 반드시 이겨야

"골 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17세 이하) 월드컵 첫 두 경기에서 골대를 세 차례나 맞고도 연패당한 한국 대표팀의 변성환 감독은 이렇게 털어놨다.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전반 2분 만에 득점한 프랑스에 0-1로 졌다. 후반 13분 크로스에 이은 진태호의 논스톱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게 아쉬웠다. 한국은 미국에 1-3으로 진 1차전에서는 두 차례나 골대를 맞았다. 골대를 맞는 건 엄연히 선수의 '실력'에 따른 것이지만, 팬들로서는 이 세 골이 모두 골대 안으로 향했다면 한국이 무패 행진으로 승점 2를 따냈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변 감독도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두 경기에서 골대를 세 번이나 맞았는데 다음 경기 때는 우리 팀에 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에는 패스 실수 등으로 흐름이 자주 끊기면서 프랑스에 밀렸지만, 후반에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변 감독은 "전반에 우리 선수들이 이른 실점을 하고서 너무 경직됐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많이 나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한국 김명준(오른쪽)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서 힘든 경기를 했다. 다행히 후반에는 실수를 줄이고 우리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적인) 우리 스타일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조 3위인 한국은 이제 4위 부르키나파소와 3차

## '유럽 트레블' 맨시티 2년 연속 최고 매출 '1조원'

### 수익 1353억으로 2배 증가

2022-2023시즌 '유럽 트레블'(EPL·FA컵·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2년 연속 최고 매출과 수익을 달성했다. 맨시티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2023시즌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7억1280만 파운드(약 1조1571억원), 수익은 8040만 파운드(1353억원)를 기록했다. 매출은 2021-2022시즌보다 9980만 파운드(1620억원)가 늘었고, 수익도 2021-2022시즌(4170만 파운드) 대비 두 배에 가까운 3870만 파운드가 증가하며 2년 연속 최다 매출·수익을 기록했다. 맨시티는 특히 방송 중계권 매출이 20.2%나 증가한 2억9940만 파운드(48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A컵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따른 것이라는 게 맨시티의 분석이다. 또 2022-2023시즌 이적 시장에서도 1억2170만 파운드(1976억원)를 벌었다. 맨시티는 더불어 '2023 브랜드 파이낸스 풋볼 50 리포트'에서 15억1000만 유로(2조1384억원)의 구단 가치를 인정받아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맨시티는 "구단의 세 가지 주요 수입원인 상품 판매, 방송 중계권, 입장권 판매에서 모두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며 "이는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분데스리가 역대 첫 여성 수석 코치 등장

### 감독 경질 베를린 구단 영입

성적 부진으로 사령탑을 경질한 독일 프로축구 유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 역대 처음으로 여성 수석 코치를 영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베를린 구단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팀을 이끌어왔던 우르스 피셔(57) 감독과 결별하고 U-19 팀을 지휘했던 마르코 그로테(51)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피셔 감독은 2018-2019시즌을 앞두고 베를린의 사령탑을 맡아 당시 2부리그에 있었던 팀을 1시즌 만에 1부리그로 올려놓는 능력을 발휘했다. 베를린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위를 차지, 창단 이후 처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진출권을 따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개막 2연승으로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이후 9연패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여기에 UCL 조별리그에서도 1무 3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베를린은 피셔 감독과 헤어지게 결정했다. 베를린은 임시 사령탑으로 그로테 감독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베를린이 임시 사령



분데스리가 첫 여성 수석코치로 선임된 유니온 베를린의 마르코 그로테.

인 그로테 감독을 보좌할 수석 코치로 마리-루이스 에타(32)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역사에서 여성 수석 코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타 수석 코치는 그로테 감독과 U-19 팀에서 코칭스태프로 호흡을 맞춰왔고, 그로테 감독이 1군팀 임시 사령탑을 맡자 수석 코치로 영정했다. 독일 연례별 여자 대표팀을 두루 거친 에타 수석 코치는 독일 여자 프로축구 무대에서 177경기(30골)를 소화한 미드필더 출신 지도자다. 독일 U-15·U-17·U-19 여자 대표팀 지도자를 거쳤고, 올해부터 베를린 U-19 팀의 코치를 맡아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더 마블스
- 4관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 5관 30일
- 6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 9관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금의 나라 물의 나라
- 7관 싸네카를 소년들, 뉴 노멀
- 8관 싸네카를 프레디의 피자가게, 톱 투 미, 어귀교- 저주를 부르는 게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